

전자잡지 포털사이트 오픈

‘모아진’ 출항, 새로운 수익창출 기대

한국잡지협회(회장 강원희)는 지난 4월 25일, 잠실 롯데 호텔에서 전자잡지포털사이트 ‘모아진’의 오픈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강원희 회장은 “잡지는 풍부한 지식의 보고이며, 모아진닷컴(www.moazine.com)은 최근 불황의 잡지 업계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전자잡지의 출발을 축하했다. 전자포털사이트인 ‘모아진’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잡지업계에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모색하고자 문화관광부와 한국잡지협회가 주관하고, 웹사이트 전문 업체인 (주)플랜티넷과 (주)아크로큐브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모아진닷컴에 전자잡지로 등록된 잡지의 건수는 모두 121종으로, 변환 완료된 잡지권수만 2천권에 이른다. 보유 기사건수는 약 6만개로 국내 최대의 전자 잡지 포털이라고 할만하다. 2006년 말까지 잡지종수 250류, 변환 예상 잡지수 6천권을 목표로 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잡지업계, 새로운 활로 모색하다

국내 잡지업계의 잡지 발행 등록 현황을 보면 2004년도 3277종에서 2005년도 3825종(유가지 2097종, 무가지 1728종)으로 17%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양적 증가에 비해 잡지의 수익은 매출 감소와 반품증가로 인해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IMF 이후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종이잡지 휴·폐간이 증가하고 있어 잡지업계는 전반적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80%에 이르는 잡지사들이 잡지사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사업을 펼쳤으나, 이는 정기구독자의 급감과 광고수익의 감소로 이어져 새로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잡지업계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이 ‘잡지콘텐츠 디지털화 기반구축사업’이었다.

잡지사 추가 매출 수익 제공과 디지털화가 목표

모아진닷컴의 등장으로 영세 잡지사들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었던 신규 콘텐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으며,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검색 및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잡지업계는 앞으로 온·오프라인 전자출판 및 온라인 콘텐츠 사업과 연계해서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수익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순정보 전달을 넘어, 가치 있는 전문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현재 고잡지 371권을 데이터화했으며, 잡지와 고객과의 커뮤니티·마케팅 환경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세우고 있다. 한편 해외시장과 새로운 유티쿼터스 통신 매체로 발전하기 위해서 해외 주요 전자도서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DMB, WiBro, 텔레메틱스를 기반으로 한 동





사진 왼쪽부터 1. 모아진닷컴 첫 페이지, 모아진닷컴은 진행중인 이벤트와 새롭게 올라온 잡지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메인화면 왼쪽 상단, 내 관심분류, 내 관심 키워드를 두고, 고객 개인에게 맞는 잡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마이페이지, 자신이 구입한 잡지와 다운로드 받은 잡지를 모아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잡지를 선물할 수 있도록 해, 잡지의 콘텐츠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3. 오래된 잡지도 원본 그대로 보관할 수 있으며, 자료의 손상과 제한없이 열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상, 음악, 링크가 가능한 복합 멀티미디어 잡지 출판도 계획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는 전자잡지

모아진닷컴은 잡지 전문 포털로, 자신이 원하는 기사를 언제 어디서든 다운 받아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사만 별도로 구입해 읽을 수 있으며, 다양한 전문 잡지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분야별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살아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서지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내용의 출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잡지는 일반적으로 PDF 파일형식으로 제작되어 윈도우와 매킨토시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종이잡

지와 동일한 Layout을 제공하면서 인터넷과 연결해 다양한 지식정보에 접속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터넷 상에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기술적인 권한을 정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모아진닷컴의 전자잡지는 쉽게 다운 받아서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복제와 인쇄에는 특별한 제약을 가해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변형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전자잡지의 가장 큰 목적은 잡지사의 수익을 다각화하면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저변을 확대하지만, 한편으로 오프라인의 판매 확대를 장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서 손쉽게 잡지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지만, 이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쇄매체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로 전자잡지 활성화 기대

지금은 모아진 사이트의 '활성화 단계'로 PR & 광고를 통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6월말까지 오픈기념으로 유료 구매시 30% 할인과 MP3 플레이어, 영화시사권, 무료식사권, 공원관람권 등의 다양한 추첨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포털과 유해사이트 차단화면에 전자잡지 서비스 홍보를 할 예정이다. 모아진닷컴은 무엇보다 기존의 전자책 솔루션 제공업체와 달리 콘텐츠를 제공하는 잡지사의 수익을 우선시 한다. 각 잡지당 판매 현황 및 각종 누적 매출액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월 매출 후 수익 배분은 30일 결제를 원칙으로 했다.

이밖에 앞으로 종이잡지와 전자잡지가 동시에 출간되는 통합 전자 출판 시스템 환경을 구축해 잡지사의 비용절감을 도와 잡지사가 스스로 내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잡지사라면 언제든 모아진닷컴에 참여할 수 있다. 김정상 기자 sang@print.or.kr

